

조선후기에 서당 학동들이 읽은 탄원서

전 경 목*

目 次

- | | |
|--------------------------|--------------------|
| I. 서론 | IV. 문학작품으로 변신한 탄원서 |
| II. 조선후기의 서당과 학동 | V. 결론 |
| III. 학동들이 읽은 국한문 소설과 탄원서 | |

요약

조선후기의 서당에는 양반의 자제 이외에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도 출입하며 한문을 익히고 유교경전 등을 두루 읽었다. 그러나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은 현실적으로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진출하거나 혹은 성리학자로 명성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용문 즉 토지나 노비 매매문서와 소송장, 축문과 혼서 등을 익히고 오늘날 면장에 해당하는 존위 등을 역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은 서당에서 탄원서를 비롯한 각종 실용문을 작성하는 법을 익혔다.

그런데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이 서당에서 읽은 실용문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요람』 혹은 『수문록』 등에 수록되어 있는 탄원서를 살펴보면 실제로 관아에 제출했던 소송장에 비해 표현이 문학적으로 수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나 사건 등이 가미되어 있어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실제 있었던 탄원 사실이 어떠한 가공 과정을 거쳐 설화 혹은 야담으로 변화하며 그 이후 어떻게 소설 등으로 확장 변모하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소설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확장 변모의 출발이 주로 중인이나 평민들이 작성한 애절한 탄원서였다는 점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양반, 중인, 평민, 서당, 소송장, 탄원서, 실용문, 설화, 야담, 소설

I. 서론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관에 청원할 일이 있으면 대부분 탄원서 혹은 청원서를 작성해서 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탄원서 혹은 청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양반들이라 하더라도 탄원서와 청원서를 작성하는 일은 생경한 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참조해야 했다. 더군다나 탄원서나 청원서에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특유의 문구나 투식이 있어서 이에 맞게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양반들은 대개 『유서필지』와 같은 서식집에서 자신이 탄원 혹은 청원해야 할 것과 유사한 내용이 쓰여 있는 문서의 서식을 모방해서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문자를 모르는 평민이나 천민들은 어떻게 탄원서나 청원서를 작성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문자를 모르는 평민이나 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후 참다못해 관아로 달려와 구두로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탄원과 청원은 문서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평민이나 천민들이 탄원이나 청원을 하려면 문자를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인물들은 서당의 훈장이나 퇴직 서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한편 조선후기에는 평민과 천민의 자제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도 문자를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탄원이나 청원을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문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이들은 탄원서나 청원서 작성법을 터득하기 위해 서당에서 관련문서들을 두루 읽었다. 이들이 읽었던 탄원서나 청원서를 필사한 책이 『要覽』 혹은 『隨聞錄』 등의 이름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책들을 살펴보면 각종 탄원서와 청원서를 비롯하여 간찰, 축문, 제문 투식과 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에는 序文이나 跋文 등이 붙어 있지 않아서 편찬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서당에서 널리 교재로 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책에 실려 있는 탄원서나 청원서를 조선시대에 실제 작성되어 관에 제출되었던 것들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사건을 크게 과장해서 서술하거나 혹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문학적 표현이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의 『요람』이나 『수문록』 등이 탄원서 작성을 위한 교육에 실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대중에게 널리 읽혔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만일 이러한 추정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탄원서 작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원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학작품으로 변모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22쪽.

Ⅱ. 조선후기의 서당과 학동

조선후기 영조대에 경상도 고성에서 서당 훈장을 역임한 仇尙德(1706~1761)이 쓴 『勝聰明錄』에는 그가 가르쳤던 제자 9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신분이 밝혀진 제자 가운데에는 官屬이나 평민 및 중인이 적지 않았다.²⁾ <표 1>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金尙祿은 官小童, 金昌濟와 千一徵은 知印이었다.³⁾ 관소동이나 지인은 주로 수령의 잔심부름에 종사했는데 비록 업무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문자를 어느 정도 알고 수령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관속들도 이처럼 서당에서 한자를 익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金時赫 형제와 金光復은 水操 즉 水軍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서당을 그만 두는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군역을 담당할 평민임을 알 수 있다.⁴⁾ 제자 중에는 李老味도 있었는데 그는 作名 형태로 보아 평민 아니면 천민 출신으로 추정된다.⁵⁾

<표 1> 서당 훈장 구상덕의 제자들(경상도 고성)

이름	직역	신분
金尙祿	官小童	官屬(아전의 자제)
金昌濟, 千一徵	知印	官屬(아전의 자제)
金時赫 兄弟, 金光復	水軍	平民
李老味	미상	평민 혹은 천민
미상(다수)	교생	중인
林時茂	미상	양반(南村鎭將 林億柱 孫子)

뿐만 아니라 구상덕의 제자 중에는 중인 출신의 교생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누가 교생이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나의 서재에 있는 학도 중에는 교생이 많아서 내가 이들을 데리고 향교로 갔다.”거나 “나의 서재에 이름이 올라있는 교생 중에 고강에서 떨어져서 평민으로 도태되는 변을 모두 면했다. 그래서 내가 기뻐서 밤에 이들을 데리고 서재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⁶⁾ 교생이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중인으로 분류되었다.⁷⁾

2) 전경목 외,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129~171쪽.

3) (門徒金-인용자 보충)尙祿見推官小童之役 冒雨入去(1755년 5월 19일, 『승충명록』 619쪽.); 門徒金昌濟被侵知印之役辭歸(1756년 1월 30일, 같은 책, 639쪽.); 千一徵亦被知印之役而辭歸(같은 해 2월 1일, 같은 책, 같은 쪽.)

4) 金時赫兄弟及金光復亦辭還 將經水操(1760년 8월 3일, 위의 책, 713쪽.)

5) 學徒李老味歸其家(1742년 12월 30일, 위의 책, 376쪽.)

6) 吾齋中學徒 亦多校生 故余率而入校(1741년 3월 12일, 위의 책, 356쪽.); 齋中校生 俱免汰變 乘月還來(같은 달

물론 구상덕의 제자 중에는 양반이 많았다. 산사에서 거접하던 시기와 용암서재기 시절에는 그의 친척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했는데 이 시기에 참여한 학동들은 거의 양반 출신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월봉서재기에는 중인 혹은 평민과 천민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양반 출신이 서재에서 함께 참여해 수강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南村鎭將 林億柱의 손자 林時茂가 구상덕에게 글을 배우러 왔다가 학동 중에 중인과 평민 출신이 많은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돌아간 것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⁸⁾

이처럼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이 서당에 출입하며 문자를 익히고 유교 경전 등을 읽는 경향은 고성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었다. 구상덕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약한 경상도 의성 출신 金敬天(1675~1765)이 지은 『巽窩謾錄』을 살펴보면, 김경천이 울산으로 이거했을 때 그에게 와서 글을 배운 제자 중 반이 양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제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명성을 듣고 글을 배우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 제자들인데 그 반이 양반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나머지 반은 양반이 아닌 중인이나 평민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파총 김여훈은 자신의 아들 김진태의 학업을 돕기 위해 아예 김경천의 이웃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⁹⁾ 파총은 武任職으로 대개 이러한 직을 맡는 사람은 향촌 내에서 중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경천이 향리 출신으로 글을 잘해 향시에서 여러 차례 합격했으며 그 중 3차례는 장원에 오를 만큼 출중한 실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결국 그는 52세에 진사시에 합격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庭試 문과를 치르기 위해 60세가 넘은 나이에 성균관에서 수학하다 비록 실패했지만 영조의 면전에서 講을 한 적도 있었다.¹⁰⁾ 그의 재능을 아끼던 수령들이 일찍이 그의 이름을 향리 명부에서 빼어 주기도 하고 儒服을 입혀 儒者로 대우하고 鄉會가 열릴 때 참석하도록 배려해주기도 했다. 수령들은 그를 冊室과 記室로 기용했으며 자신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同接으로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그는 한문 소설 『廉丞傳』을 쓴 작자로도 알려져 있다.¹¹⁾

서당에서 중인이나 평민들이 수학한 사실은 조선 말기에 白凡 金九(1876~1949)의 자서전인 『白凡逸志』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¹²⁾ 이 책 중 ‘出生及幼年時代’와 ‘學童時代’를 보면 조선 말기 서당의 여러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김구는 자기 집안의 어느 한 노인이 양반들이 쓰던 말총갓

13일. 같은 책, 357쪽.)

7) 전경목, 「조선후기의 교생」, 『고문서연구』 33, 2008, 169~205쪽.

8) 南村鎭將林億柱送其孫時茂來學(1760년 6월 7일, 위의 책, 711쪽.); 林兒還(같은 달 8일, 같은 쪽.); 林兒來學而歸(같은 달 11일, 같은 쪽)

9) 金把摠汝勛 信實勤幹 遂事盡誠 爲其子振兌 從我受業故也 遂移家接簷焉 … 其他遠居生徒 半是士族(이대형 외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51쪽.)

10)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경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2014, 81~110쪽.

11) 김영진, 「『廉丞傳』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3, 1999, 353~387쪽.

12) 『백범일지』와 서당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이해준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166~170쪽.

을 쓰고 출타하였다가 양반에게 들켜 갓을 찢기는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어른들에게 물었다. 어른들은 글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된다고 대답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어른들은 어린 김구에게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싶었다.

이 말을 들은 後부터 글 工夫할 마음이 간절하였다. 아부님의게 즐났다. 어서 書堂에 보내 달라고. 아부님은 躊躇하는 빛이 있는데 洞內는 書堂이 없고 他洞으로 보내야겠는데 兩班의 書堂에서는 잘 맞지도 안흐려니와 設或 收容한다 하여도 兩班의 子弟들이 蔑視할 터이니 그 꼴은 못보겠다.

門中에 學齡兒童을 모으고 隣洞 常놈 친구의 兒童을 몇 名 모와노코 訓料는 쌀과 보리로 가을에 모와 주기로 하고 名字는 이젓다 淸水里 李生員 한 분을 모셔왔는데 그 분이 글이 너 너지 못하여 양반이지만은 같은 兩班으로는 그 분을 教師로 雇用하는 자가 없어서 結局 우리의 先生이 된 것이나 나는 그 先生님 오신다는 날 넘어 조하서 못 견 지경이라 머리를 빗고 새옷을 입고 迎接을 나갔다.¹³⁾

김구가 서당을 보내달라고 조르자 그의 아버지는 고민이 컸다. 인근에 있던 양반 서당을 보내자니 김구가 상놈이었기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설령 받아준다 해도 양반 자체로부터 멸시를 당하면 어린 아들의 氣가 크게 꺾일 것이 우려되었다. 할 수 없이 상놈 친구들의 아들을 모아 서당을 차리기로 결정하고 청수리에 사는 이생원이라는 분을 훈장으로 모셔왔다.

김구의 이러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서당에 대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서당에 출입하는 학동들의 신분에 따라 양반 서당과 상놈 서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서당이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 서당에 상놈 학동이 다닐 수 없었고 평민 서당에 양반 학동이 드나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향교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향교의 東齋에는 양반 출신의 유생만 출입하고 西齋에는 평민 출신의 교생만 드나들었으며 설령 결원이 생겨도 상대의 齋에 오가려 하지 않았다.¹⁴⁾ 서당이나 향교 모두 신분을 철저히 따져 다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 말기에는 평민들도 마음대로 서당을 꾸리고 글공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평민들이 서당에서 글공부를 하는 것이 말기에야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다. 평민들이 향교나 서당에서 글공부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 중기부터 일 것으로 추정된다. 평민들이 향교에 출입하자 양반들이 향교에 드나드는 것을 꺼렸다는 기록이 중기부터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와 같이 평민들도 향교나 서당에서 글공부를 했다는 것은 조선시대 평민 중에도 문자를 아는 사람이

13) 『金九自叙傳 白凡逸志』, 2002, 나남출판, 19~20쪽. 백범이 쓴 원문에 오자나 철자가 틀린 것이 있지만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이 점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 전경목, 2008, 289~292쪽 참조.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 인용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구가 이미 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을 익혀서 소설책을 읽을 줄 알고 『千字文』도 동냥글로 다 떼었다는 사실이다.¹⁵⁾ 평민들도 어린 나이에 한글을 익히고 등 너머로 천자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훈장의 신분이나 학문적 성취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예우가 열악했다는 점이다. 청수리의 이생원은 비록 양반 출신이었지만 학문적 성취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양반 서당의 훈장은 되지 못하고 평민 서당에나 초빙되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예우가 형편이 없었다. 당시 사회구조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일 년의 수업료[訓料] 즉 學價를 가을에 쌀과 보리를 모아서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훈장에 대한 예우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만일 흥년이 들면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기로 한 학채를 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 더군다나 평민 서당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가난하여 저금해 놓은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흥년이 들면 학채를 받아낼 길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평민 서당이 오래 존속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학동들이 모여서 공부할 공간 마련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구의 이어지는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第一着으로 우리 舍廊을 學房으로 定하고 食事까지 奉養하게 되었다. 十二歲 開學 第一日에 나는 馬上逢寒食 五字를 배 다. 뜻은 알든 모르든 깃분 맛에 밤에도 어머님 糜(麥) 磨질을 도와드리면서 작고 외운다. ... 우리집에서 三朔을 지내고 다른 學童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近隣인 山洞 申尊位집 舍廊으로 移設됨에 나는 또한 앗츨이면 밥그릇을 메고 山嶺을 넘어 단인다. 집에서 書堂에 가기까지 書堂에서 집에 오기까지 口不絶聲으로 외오면서 通學을 하는데 程度로는 나보다 나흔 者 有하나 成跡으로는 講案에 언데든지 最優等이었었다.

不過 半年에 申尊位의 父親과 先生과 사이에 反目이 生起여 그 先生을 辭雇하게 되었는데 表面 理由는 그 先生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나 其實은 自己 孫子는 鈍材로 工夫를 잘 못하는데 나의 工夫는 日就月長을 하는 것을 猜忌함인 것은 從前에 月講을 할 때의 先生은 내 의게 從容한 부탁이 잇섯다. 네가 늘 優等을 하였으니 이번에는 네가 글을 일부러 못 외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려도 대답을 모른다고 하여라. 나는 그리 하오리다 하고 先生 부탁과 갖이 하였드니 그 날은 申尊位 아들이 壯元을 했다고 沽酒殺鷄하여 한 밥을 잘 먹은 적이 있으나 畢竟은 그 先生이 辭雇되었으니 眞所謂 常놈에 行事이다.¹⁶⁾

15) 나는 國文을 배워서 古談(小說)은 볼 줄 안다. 漢文도 千字文은 이 사람 저 사람의게 배 다.(앞의 『김구자서전 백범일지』, 18쪽.)

16) 위의 책, 19~20쪽.

서당이 개설할 때에는 김구의 집 사랑을 글방으로 정하고 아울러 훈장의 식사도 김구의 집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김구가 첫날에 서당에서 훈장으로부터 배운 글은 ‘馬上逢寒食’으로 시작하는 『唐音』이었는데 어머니의 가사를 도우면서 열심히 이를 외웠다. 그런데 겨우 석 달이 지나서 신준위 집 사랑으로 옮겨지고 불과 반년 만에 신준위와 훈장이 반목하여 서당이 끝나게 된 것이다. 서당을 폐쇄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훈장이 식사를 많이 한다는 신준위 측의 불만이었으나 신준위 손자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평민들이 서당을 상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우선 講學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대신 사랑방을 사용했으며 학채는 고사하고 훈장의 숙식조차 제공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이다. 재력이 있어야만 강학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고 훈장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학채도 지급할 수 있었는데 평민들의 재력은 매우 부실했다. 때문에 서당을 설립한다고 해도 그 운영이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실정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상놈 출신이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거나 학문에 종사하여 대학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평민들은 중도에서 공부의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其時 아부님은 種種 내에게 일언 訓戒가 있었다. 갑 버러먹기는 장탕령이 第一이라고 너도 큰 글을 하라고 애쓰지 말어라. 그러니 時行文을 注力하여라. 右明文事段은 土地文券 作成하기와 右謹陳訴旨段인 呈訴文과 維歲次敢昭告인 祭祝文과 僕之第幾子未有 伉儷인 婚書文과 伏未審인 書翰文을 잠잠이 練習하여 無識叢中에 一明星이였었다. 門中에서는 내의게 屬望하기를 將來에 相當한 尊位의 資格만으로 許하지만은 나는 其時난 漢文의 程度가 겨오 續文을 하는 데 通鑑 史畧을 읽을 때의 王候將相 寧有種乎인 陳勝의 말과 拔劍斬蛇한 劉邦의 行動이나 乞食漂母인 韓信에 事跡을 볼 때의는 不識不知間에 兩肩에 生風하였다.¹⁷⁾

김구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고 가문의 명성도 떨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공부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김구의 아버지는 그에게 목표를 수정하도록 재촉했다. 신분이 상놈이어서 우선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합격한다 하더라도 좋은 벼슬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루지도 못할 꿈을 꾸며 헛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존위가 되어 밥이라도 빌어먹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밥벌이가 되는 장타령 즉 실용적인 공부를 하기 원했다. 당장에 써 먹을 수 있는 아전 글(吏文)을 익혀서 土地賣買文書와 訴狀, 祝文이나 婚書 등을 써주고 ‘시골에서 이름난 문장’으로 행세하다가 존위 즉 面長이나 洞長라도 한 자리 하면 그것이 바로 출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이 이처럼 열악했지만 그래도 재능이 출중하면 나름 성공할 수도 있었다. 『백범

17) 위의 책, 21~22쪽.

일지』에 나오는 鄭文哉가 그러한 사례이다.

그리하여 엿지하든지 工夫를 繼續하고 심허하나 家事가 來由하여 집을 떠나 高明한 先生의 負笈할 形便은 되지 못한즉 아버님은 甚히 苦悶해 하신다. 本洞서 東北 十里許 鶴鳴洞 鄭文哉氏는 우리와 같은 階級の 常人이나 當時 科儒의 掘指하는 선비요 伯母와 再從男妹間이라 그 鄭氏집에는 四處에서 선비들이 集會하여 詩도 짓고 賦도 지으며 一邊에는 書堂을 兼設하여 兒童을 教養하든 터이라 아버님이 鄭氏와 交涉하여 免費學童으로 通學의 承諾을 得하였다.¹⁸⁾

정문재는, 앞에서 살펴본 김경천처럼, 詩賦 작성에 관해서는 소위 족집게 훈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결과 양반 출신의 선비들이 그의 지도를 받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니 타고난 재능을 기반으로 크게 성공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재능 있는 평민이 시골에서 제 아무리 출세해보았자 훈장질을 하는 것이 최상이었다. 이 점은 김경천도 마찬가지였다. 중인이나 평민들이 오를 수 있는 ‘성공의 사다리’는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서당에 중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평민들이 출입해서 문자를 배우고 기초적인 유교 경전을 익혔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작성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문서와 글, 예컨대 토지와 노비매매문서, 각종 탄원서, 혼서, 제문 등을 익혔다. 이제 서당에서 어떠한 책이나 글들을 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Ⅲ. 학동들이 읽은 국한문 소설과 탄원서

서당에서 학동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했는지를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구상덕의 『勝聰明錄』에 따르면, 학동들이 읽었던 교재는 『천자문』을 비롯해서 『小學』, 『百聯詩』, 『唐詩刪』, 『史略』, 『通鑑』 등이었다.¹⁹⁾ 대부분의 서당에서는 이외에도 『推句』, 『童蒙先習』, 『擊蒙要訣』, 『古文眞寶』 등을 가르쳤으며 이를 마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효경』, 『역경』, 『서경』, 『시경』과 같은 유교의 경전과 『心經』, 『近思錄』, 『性理大全』, 『朱子大全』 등을 교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서당의 학동들은 이러한 교재 이외에 어떤 것들을 읽었을까? 물론 양반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에 대

18) 위의 책, 22쪽.

19) 전경목, 2010, 138쪽과 154쪽.

20)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13~397쪽.

비하고 학문의 성취를 드높이기 위해 유교 경전이나 고급 성리서 등을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할 여건이 되지 않고 설령 과거에 합격해도 관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중인 이하의 자제들은 양반의 자제와는 당연히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읽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李鈺(1760~1815)의 다음 이야기가 참고가 된다.

『전등신화』는 宗吉 瞿佑가 원·명 시대 소설들을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 그 문사가 모두 속되고 가벼워 쉽게 이해되고 쉽게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吏胥들은 반드시 이 작품을 읽었다. … 知印 張宗得이 『전등신화』를 가지고 와서 배우기를 원하기에 나 또한 때때로 뒤져보니, 주석이 자못 자세하였다. … 듣자하니, 『전등신화』의 印本이 심히 많아 예닐곱 본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인쇄와 그 주석은 정말 多事스러운 일로 느껴진다. 다만 都都平丈을 위하여 밥그릇을 준비해줄 뿐이다.²¹⁾

『전등신화』의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吏胥輩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으며 그래서 그들의 자제들이 다녔던 서당에서도 왕왕 『전등신화』가 읽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선에서 『전등신화구해』만 15종 이상 간행되었다고 한다.²²⁾ 조선시대 내내 가장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도평장’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시골 훈장을 가리킨다. 『논어』 〈八佾〉편에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라는 구절 중 ‘郁郁乎文’을 시골 훈장들이 비슷한 글자로 착각하여 자주 ‘도도평장’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할 때 쓰인 호칭이다. 아무튼 조선후기에는 서당에서 학동들이 『전등신화』를 많이 읽었고 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훈장들에게는 밥벌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당에서 『蘇大成傳』과 『忠義水滸傳』과 같은 국한문 소설들이 널리 읽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국문소설은 한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훈장이 가르칠 필요는 없었을 것이나 소일거리로 이러한 책들을 보았음을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언문소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긴 밤을 지새우는 데 도움이 된다 하기에, 그것을 보니 바로 印本인데, 『소대성전』이었다. 이 책은 서울 담배 가게에서 부채를 치며 낭독하는 것들이 아닌가? 크게 윤리가 없고, 다만 사람들에게 웃음이 그치지 않게 할 뿐이다.

그러나 稗史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 李師師가 임금의 出遊를 맞은 사실은 곧 『충의수 호전』의 宋江이 밤에 娼樓에서 배알한 이야기가 된 것이고, 楡木川에서 卒崩한 일은 곧 『女仙外史』의 賽兒가 검을 鬼母 天尊에게 준 이야기가 된 것이다.²³⁾

21)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129~130쪽.

22) 김영진, 「朝鮮 刊 『剪燈新話句解』 諸本 研究(1)」, 『어문논집』 65, 2012,

23) 앞의 『완역 이옥전집』 2, 131~132쪽.

소일거리로 읽는 책이었지만 언문소설이 심심풀이로 서당에서도 널리 읽혔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군다나 『소대성전』은 한문본이 있으며 『충의수호전』도 한문으로 된 『수호지』 등이 있으니 이것 또한 서당에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비록 책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탄원서나 진술서와 같은 글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옥의 증언을 들어보자.

먼 시골의 학동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所志狀의 글이다. 그러므로 베껴서 전하고 외우는 것이 대부분 이러한 것이다. 여기 이 이야기의 내용은 宜寧의 良女 必英의 소지장인데, 대체로 『전등신화』를 많이 읽어 거기에서 얻은 것이다. 내가 대강을 수정하여 『전등신화』를 읽는 시골 학동들에게 보이려 한다.²⁴⁾

시골의 학동들이 소지장 배우기를 열망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소지장 작성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옥이 가르쳤던 학동들은 兪胥나 평민 또는 천민의 자제였다. 이서의 자제들은 이러한 글을 배운 이유는 후에 관속으로 종사할 때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민 등의 경우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청원할 일이 있을 때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사정이나 감정을 그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익힐 필요가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후기에는 민간에서 소송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했다. 조선후기에 민간에서 소송이 크게 유행한 것에 대해 다시 이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세 사람이 동헌에 소송하여, 섬돌 앞에 나란히 꿇어앉았다. 그들이 소송하는 것은 삼백 전짜리 송아지 한 마리였다. 수령이 책망하기를 “그대들은 이 고을 양반이 아닌가? 또한 노인인데, 송아지 한 마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세 사람씩이나 와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자, 그들은 사과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소송할 일은 반드시 해야지요.” 하고는, 말을 마치고 돌아갔다.

또 읍에서 북쪽으로 육십 리나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이는, 열두 푼 때문에 동헌에 와서 소송하였다. 수령이 말하기를 “내가 말을 타고 육십 리를 왔으니 필시 길에서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 경비는 필시 열두 푼이 넘었을 텐데, 소송을 안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줄 왜 모르느냐?” 하니, 소송한 사람이 “비록 열두 껌미를 쓸지라도 어찌 소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풍속이 매우 억세고 융통성이 없어, 무슨 다툼 일이 있거나 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다.²⁵⁾

24) 위의 책, 149쪽.

조선후기에 소송을 좋아하는 풍조는 비단 이옥이 유배되어 있던 三嘉縣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수령의 일기 등을 살펴보면 매일 소송이 답지해서 하루 종일 이를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는 푸념들이 많다.²⁶⁾ 수령이 소장에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세태에 대해 직접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다.²⁷⁾ 목민서 중의 하나인 『治郡要訣』에서는 수령에게 밀려드는 소장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할 정도로 소송이 빈번히 일어났다.²⁸⁾

소송이 이처럼 크게 유행한 것은 위 인용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소송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기어코 승소해야만 하는 당시의 세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정착생활에서 빚어진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원만하게 해소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 판단된다. 아무튼 조선후기 서당의 학동들은 好訟 풍조의 영향 등으로 일찍부터 소장 작성 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기를 열망했다.

이제 서당의 학동들이 읽었던 탄원서나 진술서를 살펴보자. 『봉성문여』는 이옥이 삼가현에 유배되었을 때 서당훈장 노릇을 하며 쓴 글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이 책에 서당의 학동이 읽거나 훈장인 자신이 살펴본 진술서와 탄원서 4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선 의령 출신 양녀 필영의 진술서를 살펴보자. 다음은 그 글을 번역한 전문이다.

아뢰옵니다. 저는 비록 벼슬하는 집안은 아니지만 또한 良家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정절을 지니고 깊은 규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紅顏은 薄命이요, 청춘은 易老라, 열다섯 고운 시절도 벌써 가버리고, 아홉 가지 열 가지의 혼인 의식도 못 보았습니다. 가을 달과 봄바람을 헛되이 보냈으며, 여름날과 겨울밤을 누구와 함께 하오리까? 가정을 갖고 싶은 소원은 부질없이 더해 가고, 매양 중매가 없으며 탄식만 간절하였습니다. 들보 위에 제비가 쌍쌍이 깃드는 것을 부러워하고, 거울 속에 난새가 외로이 우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마침 서울에 사는 崔郎이 약관의 나이로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사를 왔습니다. 옥을 깎은 듯한 청신한 외모와 향을 흠쳐줄만한 다정한 운치가 있어, 한 번 보고 마음이 움직였고, 두 번 보자 정이 생겼습니다. 才子가 佳人을 만났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정겨운 남자를 사모하여 그윽한 생각이 비파 한 곡조와 같고, 일렁이는 흥은 봄날의 나비나 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담장 틈으로 宋玉을 엿보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 금에 이끌려간 卓文君과 같게 되

25) 위의 책, 155쪽.

26) (三月)二十九日 民狀稠疊 例飭發令於民間 …(四月) 初四日 終日民訴沓至 初五日 番訟踏至 山訟亦然(『금마일기』,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번호 832. 이 일기는 익산군수로 부임한 鄭圭燾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7) 남원에 세거하던 이정전 등이 1832년에 산송으로 탄원서를 여러 차례 올리자 당시 수령이 “萬餘戶所志 無非山訟 若使番番發差 則有限差使 何處得來是乙喻”라고 꾸짖고 있다. 전북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남원 둔덕방의 전주이씨와 그들의 문서(1)』, 1990, 78쪽.

28) 爲宰者 埋頭牒訴 卽是末務 精神有限 而汨沒此役 則日亦不足 何事可做(『朝鮮民政資料-牧民篇』, 7쪽.)

었습니다. 三生의 冤業이 하룻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 초어스름에 만나기로 기약하면서 차고 있던 패물을 풀어 서로 주었습니다. 복사꽃이 봄에 활짝 피고, 닝쿨풀에 이슬이 함초름하였습니다. 비록 六禮의 예물 준비 없었으나, 가히 일생을 해로할 만하였습니다.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北堂의 노여움을 사서 東軒의 訟事를 부르기에 이를 줄이야. 규방의 처녀로서 행실이 이지러졌으니 妓籍에 이름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원에 있던 꽃이 길가의 버들이 될 줄 누가 생각하였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럽고 창피하며 슬픔과 아픔이 절실하였습니다. 비록 春心을 억제하지 못하여 물의 흐름이 잘못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침에 구름이 되고 저녁에 비가 된 것일 뿐, 그래도 동가식서가숙을 한 것은 아닌데, 어찌 이 약한 몸을 영구히 구렁텅이에 빠트려, 지금껏 꽃다운 인연을 막아 버리려 합니까? 하물며 저는 노래 부채와 춤옷에 발걸음 한 적이 없고, 흥겨운 가야금과 애절한 피리에 손이 익지 못하며, 郡樓 紅裙의 모임과 객관 푸른 일산의 행차에 적당한 사람이 못 되니,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朱簾을 걷어 앵무새를 놓아주시고, 매를 부러뜨려 원앙을 보호해주소서. 구멍을 뚫고 담을 넘은 죄를 용서하시어, 손을 잡고 옷소매를 끌어당기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소서.²⁹⁾

위 진술서에 의하면, 필영은 부모의 허락 없이 육례를 갖추지 않은 채 젊은 최랑과 일생을 해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 관에 고발당한 후 官婢로 몰수되어 그녀의 이름이 妓籍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수령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딸이 부모의 승낙 없이 외간 남자와 혼인을 약속한 것은 당시의 풍속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혼인하지 못해 애타는 노처녀의 심정과 관비에서 풀려난 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해로를 하고픈 욕망 등이 이 진술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서당의 학동들이 이를 읽고 암송해서 널리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영이 사랑에 굶주려 저지른 일 때문에 탄원을 했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劉振文은 실제로 양식이 떨어져 배를 주리다가 이를 구걸하기 위해 충청도 方伯 즉 관찰사에게 올린 탄원서이다. 이 역시 『봉성문여』에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人 유진문이 方伯 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집이 중국의 山東에 있으며,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아 조정에서 활동한 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鄉貢進士로서 庚申年에 國賓으로 충원되어 미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 졸지에 흉적의 칼날을 만나 온 집안이 魚肉이 되었습니다. ……

집에는 두 명의 종이 있었는데, 저를 범의 아가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귀를 채찍질하여 밤에 달아나, 강물을 건너서 여러 곳을 떠돌며 걸식하게 되었습니다. …… 드디어 두 종과 더불어

29) 앞의 『완역 이옥전집』 2, 147~149쪽.

어 ... 황해도로 가서 군현과 사찰에 양식을 구걸했습니다. 두 종은 신을 짜서 팔기도 하고, 저자에서 구걸을 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난 해 추쇄관[差官]이 와서 종들을 잡아 돌아감에 제가 홀로 이곳에 떨어져, 한 치의 땅도 다닐 수 없고, 한 되의 쌀도 옮길 수 없게 되어, 허둥지둥 의지할 곳 없음이 마치 세상에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았습니다. 속사정을 하소연하고자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봄에 심장이 찢어지려 합니다.....

林川郡守인 黃 사또께서 음식을 내려서 나에게 먹이고 자기 옷을 벗어 저에게 입히며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기를 자기 자식처럼 해주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풍속이 중국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펴서 알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 몸의 애처롭고 측은한 일을 알아주겠습니까? 원컨대, 합하게서는 이러한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구제해주옵소서.³⁰⁾

위 탄원서를 제출한 중국인 출신 유진문은 명·청 교체기에 혼란을 피해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중국 관리의 후손인데 이 글에는 그가 조선에 들어와 유민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두 명의 사내종이 특별히 加護한 덕분에 사지에서 탈출한 그는 그들과 함께 조선으로 망명해서 군현과 사찰에 양식을 구걸하기도 하고 종들이 짚신을 만들어 저자에 팔아서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추쇄관이 뒤쫓아 와서 종들을 잡아간 이후에는 홀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고생은 전에 비해 곱절이나 더 했다. 할 수 없이 관찰사에게 乞糧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서당의 학동들은 이와 같은 탄원서나 진술서를 읽고 암기를 하며 그 작성법을 익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문학작품으로 변신한 탄원서

조선후기에 서당의 학동들이 어떠한 탄원서나 진술서를 읽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옥이 소개한 또 다른 탄원서 즉 ‘애금의 진술서[愛琴供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금의 진술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가 진술하옵니다. 마음이 슬프니 말하는 것조차 욱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래 조실방에

30) 위의 책, 70~73쪽.

서 태어나 살고 있던 양가 여자로, 열다섯 살에 신지촌에 있는 우영익에게 시집갔습니다. 여자가 시집감에 그 집안을 잘 가꾸어야 했기에 삼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집안일을 수고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량하여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어서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도리어 원수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험뜯고 증상하는 말이 끝이 없어 우리 두 사람을 죄인으로 엮어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기문과 몰래 간통하였다 하면서, 끝내 좋아하지 않고 문안에서 저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생각조차 못하였지만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와 여러 어른들께 돌아가 말씀드렸으나 끝내 어렵고 가난하여 홀로 거처하게 하고 저의 생활을 돌볼 수 없었기에 마침 갈명곡에 있는 장계생의 집에 배 짠 샅을 받아 오기 위하여 동이 뜨기도 전에 저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이슬이 흥건히 내린 길을 외로이 가는데 저 어떤 힘이 범 같은 놈이 노산의 사이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원수처럼 붙들고는 넘어뜨리고 덮치고 하여 저를 희롱하며 저를 쉬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취한 듯하여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제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형편에 하물며 뒷일을 근심하겠습니까? 조금 쉴 만하면 다시 악한 행동을 하여 심지어 저의 등이 까지고, 다리가 저려 혼절하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놈이 제 적삼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이에 저의 아버지께서 그 사유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딸이 혼자 살다가 다시 흥포한 욕을 당할까 염려하여 이웃집 늙은 할아버지 정귀남에게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혼인을 한 까닭에 그의 집에 가서 저의 재물을 옮겨 함께 해로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에 지금, 전날 그놈이 와서 처음에는 용의곡에 사는 김명길이라고 하면서 손에 官牌와 잃어버린 제 적삼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면서 아침마다 함께 살기를 맹세했는데, 어찌 옷이 없어진 것인가? 당신이 주었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너무도 신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없이 무고하게 모함을 하였으나 대저 아내를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중매가 없으면 얻지 못하는 것인데 그에게 좋은 중매쟁이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명길은 말을 하더라도 또한 심히 추악합니다. 저 미친 놈의 미친 행동은, 저는 전혀 마음에 없습니다. 저를 옥사에 붙였으나 가정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비록 저를 송사에 엮었으나 또한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귀남은 처자와 화합할 만하여 그와 해로하며 누린 머리와 새 이가 나도록 진실로 저의 짝이 될 만합니다. 죽어도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이에 감히 사연을 갖추어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위의 연유를 자세히 헤아리신 후에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이 외로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어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가 제가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소서.³¹⁾

위 진술서에는 애금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 그녀는 경상도 성주의

31) 위의 책, 133~137쪽.

조실방에서 태어난 양녀로 15세에 신지촌의 우영익에게 출가했다. 3년 동안 시집의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우영익은 그녀를 원수로 여기다가 이웃집 김기문이란 사내와 간통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쫓아냈다. 애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소박맞고 돌아왔지만 친정에서 그녀를 받아줄 형편이 못되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베를 짜며 홀로 살았는데 갈명곡 장계생이라는 사람에게 베 샅을 받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흉포한 자를 만나 성폭행을 당하고 적삼까지 빼앗겼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애금의 친정아버지는 그녀가 더욱 사나운 일을 당할까 염려해서 이웃집 늙은 홀아버 정귀남에게 시집가도록 중매를 했다. 그러나 시집간 후 얼마 안 되어 용의곡에 사는 김명길이라는 자가 나타나 애금이 자신과 혼인해 살기로 맹세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그녀의 적삼을 내어 놓았다. 그는 이전에 애금을 성폭행한 바로 그 자였다. 그래서 애금은 그간의 사실을 수령에게 아뢰고 귀남과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진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특이하고 과격적인 점이 드러난다. 이옥이 진술서 대부분을 『시경』의 각 편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조금 변용해서 작성했기 때문이다.³²⁾ 이옥이 『시경』의 각 편의 글을 얼마나 인용했는지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텔릭체로 도드라지게 표시된 부분은 모두 『시경』에서 인용한 구절인데 이와 같이 전거가 있는 글을 인용해서 진술서를 작성한 점은 마치 모자이크 기법으로 서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右謹陳中心是悼言之辱也情由矣段 女矣身亦 本以造實坊胎生 居住良女 十五歲分良中 出嫁於新支村禹令益處爲有置 之子于歸 宜其室家 三歲食貧 靡室勞矣是白如可 夫也不良 人而無禮 不我能畜 反以我爲讎 讎不喻 譜言罔極 構我二人 以爲潛通於隣居人金起文是如爲白遣 逝不相好 薄送我畿 反是不思 亦已焉哉

女矣身 復我諸父 終棄且貧 敦彼獨宿 不我活兮是白只以 適音葛明谷張桂生家良中 備織價受來次以 東方未晡 陟彼崔嵬 厭浥行露 獨行踽踽是白加尼 彼何人斯 有力如虎 遭我乎狺之間兮 邂逅相遇 執我仇仇 顛之倒之 伊其相諍 使我不能息兮 中心如醉 尙寐無吽 我躬不閱 遑恤我後 汙可少休 覆出爲惡 甚至女矣身 背脫脚痠 昏倒不知之中同 闕漢褌奪赤衫而去是如 女矣身 匍匐歸嫁 累日不能起 則矣父始聞其由是白遣 或恐女子獨居 復逢強暴之辱 許嫁於隣居老鰥夫丁貴南處 昏因之故 言就爾居 以我賄遷 與子偕老

不意今者 前日厥漢 始稱龍儀谷居金命吉 而手持官牌及女矣身所失之衫是遣 謂以女矣身携手同行 信誓朝朝 豈曰無衣 美人之貽 它人入室 大無信也是如 無數誣陷是白良置 大抵取妻如何 匪媒不得 子無良媒 云如之何 命吉段 所可道也 亦孔之醜 狂童之狂 匪我思存 雖速我獄 室家不足 雖速我訟 亦不汝從 貴南段 妻子好合 及爾偕老 黃髮兒齒 實維我儀 之死矢靡他 茲敢具由仰訴爲白去乎 右項緣由乙 細細參商教是後 無信人之言 哀此縈獨 歸我歸哉 適我願兮爲白只爲

32)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번역자 김동석의 꼼꼼한 주석에 의해 밝혀진 바이다.

이옥이 수정한 ‘애금의 진술서’는 총 53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시경』에서 인용한 부분은 53구절로 249자나 된다. 전체 문장 가운데 고문서의 투식이나 이두, 그리고 지명이나 인명 및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빼면 거의 『시경』을 인용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이다. 『시경』의 어느 편, 어느 장에서 인용했는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시경』 인용 편장과 횟수

편장명	횟수	편장명	횟수	편장명	횟수
周南 卷耳	1	鄘 柏舟	1	秦 無衣	1
桃夭	1	干旄	1	陳 墓門	1
召南 行露	3	衛 氓	6	豳 東山	1
殷其雷	1	王 黍離	1	伐柯	1
邶 日月	1	兔爰	1	小雅 常棣	1
終風	1	鄭 褰裳	1	黃鳥	1
擊鼓	2	揚之水	1	我行其野	1
谷風	2	出其東門	1	正月	2
簡兮	1	野有蔓草	2	十月之交	1
北門	1	溱洧	1	雨無正	1
靜女	1	齊 還	1	小弁	1
鄘 柏舟	1	東方未明	2	巧言	1
牆有茨	1	唐 山有樞	1	魯頌 閟宮	1
君子偕老	1	杕杜	1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경』의 41 곳에서 인용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한 篇·章은 衛風의 氓으로 6번 인용했으며 다음은 召南의 行露로 3번, 邶風의 擊鼓와 谷風, 鄭風의 野有蔓草와 齊風의 東方未明 및 小雅의 正月은 각기 2번씩 인용했다. 나머지 34곳에서는 각기 1번씩 인용했다. 『시경』 전편에서 고르게 인용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보다 더욱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인용문만으로 탄원서를 완벽하게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옥의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옥이 수정하기 이전의 글과 이 ‘애금의 진술서’를 비교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이옥이 수정하기 이전의 탄원서로 추정되는 글이 『수문록』이라는 책에 ‘寡女雪冤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우선 이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右謹陳所志 憤氣撐腸 痛入骨髓事段 矣身亦 租谷坊胎生良女 養在深閨 人不識爲是如乎 十五移所天 嫁得新番村禹令稱名人 既嫁從夫條以 于歸其家 三歲食貧爲有置 紅顏薄命 造物爲猜 夫

也不良 待之不禮忿不喻 宴爾新婚 以我爲讐 至於隣居金起文乙 潛爲通干是如是遣 執以爲言 無數亂打 頭髮扶曳 下堂出送是去乙 女亦 率彼曠野 艱難遁歸 十載洞房 一心自持是乎矣

家貧親老 資生無路乙仍于 適音五里許葛明洞張戒生家 衣織價物乙 受來次 鷄鳴而起 冒曉而往 則東方未明 晨光徬迷 厭浥行路 熒熒獨行爲乎則 山回路轉處 忽有面黑身長者 誰子不知 何處從來爲乎喻 忽然相逢 偃然當道 目以送之 睨而視之爲如可 倏忽之間 突然而犯 左手執髮 右手牽衣 轉入溪谷中藤莽間是白去乙 女亦相與拒執 不爲屈伏是白遣 高聲呼唱 青山欲裂是乎矣 村家隔遠 道無行人是乎於 澗水亂鳴 聲不聞外仍于 嬋妍弱質 久不能支 勢窮力盡 我乃顛躋是乎 則 張目拳裳 捷手舉脚 附腹進退 不有餘力是乎所 矣女精神墮地 魂魄上天 意奪神駭 心驚骨酸 忿不喻 至於背皮 盡爲脫破是乎尔 喘息急數 呼吸莫通 威道不成是乎所 矣女所着赤衫 威力脫去 仍忽不見 莫知所向是去乙 女亦仰天無言 掘地欲入是乎矣 事已到此 無可奈何乙仍于 忍憤含羞 匍匐歸家 因傷致病 委臥莫省爲乎則 老父見之 怪問厥由 父女之間 不敢隱諱 污辱之事 箇箇說道 則慈情所在 尤憐極憐 且慮日後更有此過 卽於是日請隣鰥居老人丁貴男者 館甥于室 合爲夫婦 與之同居 于今半年是去乙

不意前日 路上相逢上項人亦 自稱龍依洞命吉是如 踏印官牌持是遣 來到門前是乎則 面目儀形 彷彿當日 却憶前事 寒栗遍體是遣 況稱其矣所志中 張皇說話 無非矣身不幸之致 使人大慚 無所伸辨是乎尔 脫去赤衫 謂以親自相約 構之誣訴官前 執此爲訂爲臥乎所 大槩曰男曰女 大義存焉 有婦有夫 人道立焉是去乙 命吉段 素無媒妁之約 又無桑中之期 而威力刳奸 雖欲守貞 穴非封鎖 錘何不入 而實無矣女所失 類同禽獸者 豈可所望而終身乎 貴男段 時年七十是乎矣 老當益壯忿不喻 且父所賜而其矣家勢稍足 待我甚厚 到此背棄 情不忍

令監主爲民父母 政先鰥寡 右良緣由 細細監察 前後事狀 各別洞燭教是後 使匹夫匹婦 各得終身所如 則雖髡彼白髮 實惟我儀 惟彼狂夫 非我思存 雖速我獄是如(良의 誤:인용자주)置 室家不適(足の 誤:인용자주) 甚微他適爲只爲³³⁾

이옥이 수정한 ‘애금의 진술서’와 그 원본으로 추정되는 ‘과녀설원장’을 비교해보면, 애금이 겪어온 과정은 동일하나 그에 대한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두 글의 첫 단락을 비교해보면, 조실방에서 양녀로 태어나 15세에 혼인한 후 3년간 가난 속에서 갖은 고생을 했지만 남편은 그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옆집에 사는 김기문과 몰래 간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아내라는 사실은 같으나 이러한 과정을 밝힌 표현은 크게 다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탄원서의 첫 단락만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이 첫 단락에는 애금이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심정, 15세에 출가하는 광경, 시집으로 들어간 사연, 남편이 박대한 이유, 누명을 씌워 아내를 쫓아내는 과정 등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 표현을 살펴보면 아래의

33) 『수문록』 37, 寡女雪冤狀. 이 책은 개인 소장으로 조선 후기에 민간에 널리 알려졌던 所志, 通文, 祭文, 祝文 등을 베껴놓은 것이다. 『수문록』 이외에도 이러한 문서들은 필사해 놓은 책이 『요람』 등의 이름으로 널리 읽혔는데 이러한 책의 필사 시기와 필사자 및 대략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別稿로 소개할 예정이다.

표와 같이 서로 차이가 있다.

〈표 3〉 과녀설원장과 애금의 진술서 표현 비교

내용	「과녀설원장」	「애금의 진술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억울한 심정	憤氣撐腸 痛入骨髓事	中心是悼言之辱也情由
15세에 출가	十五移所天 嫁得新番村禹令稱名人	十五歲分良中 出嫁於新支村禹令益處爲有置
시집으로 들어간 사연	既嫁從夫條以 于歸其家	之子于歸 宜其室家
남편이 박대한 이유	夫也不良 待之不禮忿不喻 宴爾新婚 以我爲讐	夫也不良 人而無禮 不我能畜 反以我爲讎
누명을 씌워 아내를 쫓아내는 과정	至於隣居金起文乙 潛爲通干是如是遣 執以爲言 無數亂打 頭髮扶曳 下堂出送是去乙	譖言罔極 構我二人 以爲潛通於隣居人金起文是如爲白遣 逝不相好 薄送我讎 反是不思 亦已焉哉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은 크게 다르게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全面改稿’했다고 주장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점은 첫 단락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단락에서도 동일하다. 즉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문장의 표현 등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처럼 이옥이 수정한 「애금의 진술서」는 「과녀설원장」을 대대적으로 개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녀설원장」은 실제로 애금이 관에 제출한 진술서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보다는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이옥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供狀은 성주 지방 양녀 애금의 소장으로 아이들 중에 그것을 베껴 전하는 것이 있어, 그 일이 우스울 뿐만 아니라 진술한 말도 포복절도할 만하다. 혹시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지은 글이었을까? 이에 대략 다듬고 고쳐서 무료할 때에 이야깃거리로 삼고자 한다.³⁴⁾

이옥은 ‘과녀설원장’의 내용이 우습고 포복절도할 만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진술서를 혹시 누군가 창작한 글이 아닐까 의심했다. 즉 이옥은 이 ‘과녀설원장’을 보고서 사실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지은 글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애금이 하소연한 이 애절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글을 보고 이옥은 느닷없이 포복절도할 만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이 글을 읽고 이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표현이 많이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구도나 인물의 설정 등도 크게 가공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러한 추론은 실제로 조선후기에 유사한 상황을 당해 관에 제출되었던 탄원서와 비교해보면 더욱

34) 앞의 『완역 이옥전집』 2, 137~138쪽.

확실해진다. 먼저 충청도 영춘현 만종리에 살던 조원서의 아내가 1887년(고종 24)에 제출한 탄원서를 살펴보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수령에게 올려 관비가 된 자신의 딸을 석방시켜 달라고 하소연했다.

원정을 작성해 제출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딸이 체포당한 일로 외람되어 번거롭게 호소하게 되오니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헤아려보건대 저의 딸과 동갑내기 여아들은 아직 시집조차 가지 않은 일이 허다한데, 이 무슨 薄福한 身世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입에서 아직 젓 냄새가 가시지 않은 아이라 단지 살기만 도모했을 뿐 절개를 잃은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려를 세워 정절을 기릴 만한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만약 장차 남의 첩이 되어 자신을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빠뜨린다면, 이미 평생을 가르친 신세가 되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진다 해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또께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는 은택으로 賈女인 제가 사는 이 고을에 수령으로 부임하셨으니, 저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시는 사또의 처분을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령 아내를 버린 지아비가 와서 호소한다면 이치상 혹여 용서하기 어렵겠습니다만, 六禮를 갖추지 않고 그냥 따라가 첩이 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친하게 여기며, 또 이미 후일 경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딸이 비록 三從之道를 잃었다 하더라도 어찌 재혼할 기회마저 없어야 하겠습니까? 그 어미 된 자의 원통함으로 이에 감히 밝게 살피시는 사또님께 우러러 부르짖으니, 통촉하신 후에 특별히 河海와 같은 은택을 내려주셔서 劉班의 집으로 돌아가 이 유약한 마음의 여아로 하여금 원한을 품지 않게 해주시기를 천만 번 바랍니다.

정해년 7월 소지.³⁵⁾

조원서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그녀의 딸은 아직 입에서 젓 냄새가 날 정도로 어렸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때문에 일찍 시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위 녀석은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친 딸은 살기 위해 외간 남자의 첩이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관에 고발해서 필영처럼 체포되어 강제로 관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조원서의 아내는 딸을 대신해서 수령에게 탄원서를 올려 선처해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조원서의 아내가 수령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필영의 진술서’와 비교하면 관비에서 풀어달라는 청원의 내용은 같지만, 표현이 상당히 다르고 이야기의 전개나 구성 역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표현을 살펴보면, 조원서의 아내가 올린 탄원서에도 “입에서 아직 젓 냄새가 가시지 않은 아이라 단지 살기만 도모했을 뿐 절개를 잃은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35)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47~49쪽.

못했다” 등의 문학적인 표현이 있긴 하다.

그러나 필영의 진술서에는 “홍안은 박명이요, 청춘은 이로라”거나 “옥을 깎은 듯한 청신한 외모와 향을 흠쳐줄만한 다정한 운치가 있어, 한 번 보고 마음이 움직였고, 두 번 보자 정이 생겼습니다.” 등을 비롯하여 “처음에는 제가 담장 틈으로 宋玉을 엿보는 것 같았으나, 마침내 금에 이끌려간 卓文君과 같게 되었습니다.” 등은 모두 전거를 끌어대어 글을 짓고 글자 수를 맞추어 운율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對句를 이루도록 해서 의미가 두드러지도록 표현했다.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게 표현하는 조원서 아내의 탄원서에 비해 필영의 진술서는 모든 문장이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 첨가되었다. 필영이 부모의 승낙 없이 외간 남자와 혼인을 약속하자 분노한 어머니가 고발하여 필영이 관비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건 설정은 기상천외의 발상이어서 이옥의 말대로 ‘포복절도’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외간 남자와 혼인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과년한 딸을 관에 고발해서 관비로 만들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겠는가? 잘못을 저질러 관비가 된 딸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조원서의 아내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필영 어머니의 고발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문학적으로 가공한 것임을 바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옥이 전면개고한 ‘애영의 진술서’나 그 이전의 ‘과녀설원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탄원서에 비해 ‘과녀설원장’이나 ‘애영진술서’는 이미 문장이 문학적으로 크게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 설정에서도 크게 가공되었다. 이옥이 『시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글을 개고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노산에서 애금을 강간했던 용의곡의 김명길도 후에 관의 명령서와 적삼을 들고 찾아온 것 등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기보다 흥미와 갈등을 배가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건 혹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옥의 『봉성문여』에 수록된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는 실제로 있었던 탄원서와 비교해 볼 때, 문학적으로 매우 많이 수정되고 가공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봉성문여』 뿐만 아니라 『요람』이나 『수문록』 등에 수록된 탄원서 중에는 실제로 관에 제출된 것을 그대로 전사한 것도 있지만, 문학적으로 상당히 가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점을 좀 더 규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하나 더 살펴보자. 앞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서당 훈장은 출신이나 인품 및 학문적 성취도나 교육자적 자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서당에 어떠한 훈장이 초빙되느냐는 주로 학부모의 관심과 재력 등에 달려 있었지만 교육 과정에서 훈장과 학부모 혹은 훈장과 학동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았다. 먼저 이에 대한 김구의 증언을 들어보자.

나희가 十四歲나 되고 先生이라고 맞나는 이가 舉皆 固陋하여 아모 先生은 벼(稻) 十石짜리 아모 先生은 五石짜리 訓料 多少로 其 學力을 醜酌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열인 때 所見으로도 其用心處事가 人의 師表의 資格으로 보여지지 않는다.³⁶⁾

어린 김구가 보았을 때에도 시골 훈장의 학문적 수준이나 인격이 이와 같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선 서당 훈장과 관련해서 관에 제출되었던 탄원서를 읽어보기로 하자. 충청도 홍산현 内山内面 苧洞里에 사는 朴永植과 韓仁教 등이 1884년에 수령에게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제출했다.³⁷⁾ 이 탄원서를 편의상 ‘저동리 박영식 등장’이라 부르겠다.

내산내면 저동리에 사는 朴永植·韓仁教·韓光錫·金商達 등이 아뢰니다.

삼가 말씀드리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士人 金養烈은 50세로 아내를 잃고 홀아비로 살면서 어린 아들을 거느린 채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글을 가르치며(舌耕)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계획으로 금년 봄에 그를 우리 마을로 초청해서 그가 지난 일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곡식(書糧)은 겨우 나락 5가마에 불과했는데 그는 이를 잘 아는 제자의 집에 유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번 封庫할 때 監官과 色吏가 관의 명령을 받고 집집마다 수색하다가 이 나락 5가마니를 압류해 봉고하고서 읍내로 가버렸습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대 변괴입니다. 鴻山이 비록 땅이 좁고 가난한 고을이라고 하지만 어찌 꼭 가난한 선비의 양식을 압류해야 만족하겠습니까? 또 4窮 즉 홀아비, 홀어미,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등 4부류의 매우 딱한 처지에 있는 백성은 周나라의 법에 의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漢나라의 법에 의하면, 賑貸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대의 정치를 펼쳐야 하는데 도리어 글을 가르치고 받은 나락 5가마니를 빼앗아 봉고하니, 저 슬프고 가난한 선비가 굶주림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밝은 정치의 인자한 명성에 크게 손상을 입히는데 이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부탁했기에 차마 그가 굶주림 때문에 떠돌이생활을 하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사연을 수령님께 사실대로 하소연하니 봉고한 나락 5가마를 즉시 지급해 주시기를 천만번 바라웁니다.……

박영식 등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양반 출신의 김양렬을 훈장으로 맞아들였다. 그는 50세의 홀아비로 자식까지 딸려 있었으나 먹고살기 위해 훈장 노릇을 하느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일 년 내내 학동을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겨우 나락 5가마였는데, 이마저도 별감과 색리의 착오로 관에 몰수되었다. 그래서 학부모인 박영식 등이 수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몰수된 나락을 훈장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별감과 색리의 착오로 훈장이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학부모가 나서서 수업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달리 훈장이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는 학부모를 직접 수령에게 고발하는 탄원서

36) 앞의 『김구자서전 백범일지』, 21쪽.

37) 이 탄원서도 필자가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앞의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176~178쪽.

도 있었다. 아래의 ‘大丘訓長原情’이라는 탄원서는 서당의 학동들에게 널리 읽혀졌다고 알려진 것 중의 하나이다.³⁸⁾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갈대밭에서 게[蟹]를 잡다가 이미 광주리를 잃어버렸고 서당[楮田]에서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다[舌耕]가 단지 곤육만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곤육을 당하고 쫓겨나니 곧 끈 떨어진 꼭두각시와 낮에 출현한 도깨비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牛皮直冒] 감히 황당무계한 글로 이 분통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閣下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버리지 마시고 사정을 살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湖州의 士人으로 어려서 才藝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청운의 꿈을 품고 上京하여 벼들과 어울려 술과 풍류로 거리에서 손잡고 추종하던 서울 생활 10년, 주머니는 바닥이 나고 百戰科場에 공명은 더욱 멀어만 갔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니 종적이 기구했습니다. 村堂에 아이들을 모으고 山齋에서 학문을 가르침에 비로소 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史略』 初卷이 朝夕間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며 천자를 떼고 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것이 세월을 보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동들의 迷鈍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다 보니 자기 공부를 할 수 없어 입에서 가시가 생길 지경이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글이 어렵고 뜻이 깊어서 가르치는 것이 가슴 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짙 막혀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고 머리털은 세어만 갔습니다. 시력은 점점 희미해졌으나 한시도 게을리 한 적이 없이 나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옛 성현께서 말씀하신 일 년 수업료[束修五定之禮]는 예나 이제나 한 가지이므로 내가 청한 것은 나락 한 가마니와 돈 한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아버지는 呂僉知와 金僉知가 감투를 반쯤 빼딱하게 쓰고 수염을 곤두세우고 큰소리로 무수히 공갈치며 말하기를 “이 양반이 물정을 모르는군. 시절이 이와 같고 시가[市價]가 저와 같은데 수업료[禮租]가 무슨 소리며 옷값[衣資]이 다 무어요. 千里 行商도 빈 채찍만으로 돌아오고 일 년 머슴을 살고도 빈손으로 가는 터에 生員 文字가 그 값이 얼마이기에 갑오년의 병거지[毛筮] 값이요.” 이와 같이 모욕을 준 뒤 팔을 걷어 부치고 눈을 부라리며 욕질을 해대는데 마치 쥐란 놈이 얼굴 돌리듯 하고 호랑이가 등 뒤에서 쫓아오듯 합니다.

만약 그들이 나락이 없고 돈이 없어서 수업료를 낼 길이 없다면 비록 한 해가 다 가도록 훈장 노릇해도 원통할 것이 없으나 소위 여침지는 쌀을 많이 쌓아두고 묵히고 있으며 김침지는 돈 쌓아둔 것이 곳간에 차고 넘치는 터에 成川寺의 化主僧이 勸善토록 하면서 시주를 청하면 나락 한 섬이나 두 섬을 흔쾌히 허락하여 인색치 않으며 花壘庵의 舍堂女가 小鼓를 치면서 염불을 하면 한 께미나 두 께미의 돈을 선뜻 내주고 아까운 줄 모르는데 禮教文訓의 선생에 이르러서는 대하기를 이처럼 하고 퍽박하기를 저같이 하니 백성의 풍습을 바로 잡고 風化를 돈독히 하는 길로서도 尋常히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에 따라 유배를 보내어서 기강을 바로

38) 정석중, 「洪景來의 亂」,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하, 풀빛, 1981, 299~300쪽.

잡아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위 원정에 나오는 대구의 훈장은 어렸을 때 재예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장차 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해서 10년간 과거 공부를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가산을 모두 탕진하자 시골로 내려와 『친자문』이나 『사략』을 학동들에게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 되었다. 학동들로부터 받는 수업료는 기껏해야 나락 한 가마니와 돈 한 냥뿐이었다. 그런데 흥년이 들자 학부모인 여침지와 김침지가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어댔다. 훈장이 보기에는 이들은 돈이 없어서 수업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찰이나 사당에는 시주를 많이 하면서 자제의 수업료 지불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훈장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 ‘대구훈장원정’은 앞에서 살펴본 ‘저동리 박영식 등장’과 비교해보면 ‘대구훈장원정’이 ‘저동리 박영식 등장’보다 크게 문학적으로 가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머리에 “갈대밭에서 게를 잡다가 이미 광주리를 잃어버렸고 서당에서 훈장으로 글을 가르치다가 단지 곤욕만을 당했다[蘆場捉蟹 既失其筐 楮田舌耕 徒受其困]”라든가 “청운의 꿈을 품고 上京하여 벼들과 어울려 술과 풍류로 거리에서 손잡고 추종하던 서울 생활 10년, 주머니는 바닥이 나고 百戰科場에 공명은 더욱 멀어만 갔습니다[洛水靑雲客 呼朋而歡酒 紫陌紅塵群 握手而追從 十年京華 囊橐已罄 百戰科場 功名倏遠]” 등은 서로 글자를 맞추어 대구를 이루도록 한 점 등을 보면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를 이본과 대조해보면 표현뿐만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의 설정 등이 크게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수문록』에 위 탄원서의 異本人 ‘舌耕見逐事呈狀’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여침지와 김침지 및 그에 얽힌 이야기는 아예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따라서 서당의 학동들은 실제로 올린 탄원서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그러나 문학적으로 크게 가공한 글들을 많이 읽고 암송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물론 처음부터 아예 문학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글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요람』에 나오는 ‘猫今所志’이다.⁴¹⁾ 우선 이를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어려서 어미를 잃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식성이 채소를 좋아하지 않고 고기반찬만 즐기다 보니, 주는 음식에 고기가 없으면 뒤로 물러앉아 먹지 않고 매번 長缺의 탄식을 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가자미와 대구 등의 생선을 잘게 부쇄 가루로 만

39) 「수문록」이나 「요람」 등에 수록된 異本人에 대해서는 후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40) 문학 작품으로 변신한 탄원서가 이옥이 개작한 것 이외에도 얼마나 있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창작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41) 청구번호 한古朝93-128. 이 책에 대한 번역이 이대형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대형·이미라·박상석·유춘동, 『要覽』, 보고사, 2012.

들어 밥에 비벼 먹으라고 달랬으니, 주인의 은덕은 하늘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장성한 뒤에 조금 이와 발톱이 생겨 쓸 만해지자 도둑 쥐를 소탕하는 것을 저의 소임으로 삼았습니다. 밥을 훔치는 도둑이 부엌 찬장 아래에서 제 멧대로 다니고 있으면 그 즉시 붙잡아 아침저녁 찬거리로 공급하였고, 더러 반찬을 훔치는 도둑이 창고에 출몰하기라도 하면 몰래 엿보다가 붙잡아 점심으로 먹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도둑 쥐의 머리카락이나 꼬리 양 끝이 나오려고 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높이 날아 빙빙 돌면서 울부짖어 간교한 무리들이 알아서 종적을 감추도록 하였습니다. 도적을 막는 방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주인께서는 저를 얻은 뒤로 옷을 찢길 염려가 없어졌고 깨끗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대접하는 것이 다른 집짐승과는 달리 방안을 드나들게 하며 사랑을 극진하게 베풀었습니다.

저 구동이는 바로 바깥뜰에서 지내는 종으로 맡은 일은 고작 문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어서 마루 아래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거늘 제 분수도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주인에게 총애 받는 것을 보며 늘 질투심을 품고 있다가 저를 만나면 쫓아와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이 약해 대적하지도 못하고 외로운 신세라 싸우지도 못한 채 급히 북쪽으로 내달려 처마 위로 뛰어 올라가야 겨우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대개 저는 구동이와 비록 부류가 다르나 동류로 얽혀서 일찍이 목은 원한도 없고 또 싸울 이유도 부족하니, 마땅히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갓 대우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질시하며 매번 해치려고 하니, 그 심보가 매우 못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래 이놈은 심술이 좋지 못하여 이웃집 아이가 흑여 불을 빌리러 오는 일이 있으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 이빨로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해서 주인을 욕보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주는 여종이 조금이라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 틈을 타 음식을 훔쳐먹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부를 정도로 먹습니다. 그리고는 건책을 피하기 위해 齋日이라고 핑계대고 마루 아래로 깊이 들어가 꼼짝 않고 누워 일어나질 않으니 그 정상히 몹시 흉악하고 간사합니다. 매번 주인이 아침저녁으로 밥을 대할 때에는 편안하게 뜰에서 머리를 들고 맘껏 주인의 행적을 보고 있으니, 그 본심은 실상 음식을 뺏고 싶은데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주 꾸지람을 듣고 물러나는데 매번 벌을 받게 되어서는 저에게 원망을 돌리고 언제나 몹시 미워합니다. 이러한 악습을 징계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으니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사정을 세세하게 다 아뢰었으니 마땅한지 살피시고, 위 구동의 죄를 각별히 다스린 뒤에 의리로 책하시어 기필코 그 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피차가 화목하게 함께 집안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개와 경쟁 관계에 있던 고양이가 자신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피력하고 항상 주인의 눈을 속이는 개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이다. 이러한 탄원서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창작된 것이지만, 탄원서를 익히려는 서동들에게 충분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장치를 글의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먼저 고양이와 개라는 설정부터 서동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었으며 그들이 애완동물로서 주인에게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충성심 또한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였다. 이처럼 의인화한 법정소설의 백미는 『蛙蛇獄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학동 그중에서도 특히 장차 이러한 일에 종사할 서리의 자제들에게 매우 유익한 학습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²⁾

그런데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남아 있다. 첫째, 왜 하필이면 탄원서 형태로 글을 작성했는가? 둘째, 이옥은 왜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를 개작했는가? 셋째, 이러한 글들이 궁극적 독자는 누구일까? 등이다. 왜 하필이면 탄원서 형태로 글을 작성했는가 하는 점은 탄원서 자체가 절절하고 고달픈 사연을 담을 수 있으며 사회의 여러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탄원서 형식이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령 등에게 호소하는 형태이기에 여성이나 어린 아이 혹은 승려나 雇人 등을 주인공으로 할 경우 예상의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혼한 산송, 노비나 토지의 소유권, 결양, 환곡, 탈역, 면세, 정려, 설원, 채무 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걸치는 문제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 형태로 글을 작성했다. 더군다나 글의 분량이 소설처럼 길지 않아도, 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 상황을 설정해 가면서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탄원서 형태로 이러한 글들이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옥이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를 왜 개작했느냐 하는 것은 먼저 그가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를 보자 타고난 작가적인 기질이 발휘되어 이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를 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이 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가 개작한 글들이 『시경』의 글귀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작한 것을 읽으면서 『시경』 어느 부분의 글을 인용했는지 등을 알아맞히고 암송하도록 활용했을 것이다.

서당에서 훈장과 제자가 경전 공부를 마친 후 암기력과 활용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文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古今笑叢』에 전하는데 그에 의하면 경성에서 훈장으로 활동하던 노스승은 3명의 제자에게 『논어』를 가르쳤다. 이를 완독하고 달포 쯤 복습한 후 스승을 뵈자 그는 『논어』 가운데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문답을 하자고 제안했다.

스승은 먼저 學而篇에 나오는 ‘溫故而知新’을 활용해서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알았으니 각자 자신을 의지를 말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스승의 눈에 백태가 끼어 있고 핏발도 서 있었다. 이를 본 한 제자가 避席하며 顏淵篇에 나오는 ‘請問其目’이란 구절을 활용해서 “그 눈이 어찌 된 것인지를 묻습니다.”라 했다. 원래는 “그 조목을 묻습니다.”라는 뜻이었다. ‘目’이 조목과 눈[眼]을 함께 의미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물은 것이었다.

다른 제자는 이를 이어 “(눈이) 붉게 된 까닭은 어째서 입니까? [赤也何如]”라고 물었는데 이는 公冶

42) 김준영, 「와사옥안의 고대소설상 특성」, 『국어국문학』 114, 1995; 김재환, 「와사옥안 역해」, 『새얼어문논집』 10, 1997; 정선희, 「『와사옥안』 작자고」, 『한국고전연구』 6, 2000; 박여범, 「와사옥안」의 구조적 특질 연구, 『한국언어문학』 50, 2003.

長篇에 나오는 말로 원래의 뜻은 “公西赤은 어떻습니까?”였다. 나머지 한 제자는 “제가 선생님의 그런 눈을 고쳐드리겠습니다.[吾與點也]”라고 했는데 이는 先進篇에 나오는 글로 원래의 뜻은 “나는 曾點을 許與 한다.”였다. 點 자에 ‘고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자 스승이 빙그레 웃으며 “文彩는 나지만, 狂簡하여 재주를 취할 바가 없도다. 우리 黨의 아이들아! 복을 치며 그 죄를 성토했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공야장과 선진편에 기록된 글을 이어 문답을 마쳤다.⁴³⁾

이처럼 서당에서는 경전을 암송하게 한 후 그를 활용해서 글을 짓기도 하고 문답을 나누기도 했으며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와 오락을 했다. 물론 위의 문답은 서당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오락 혹은 놀이로 일종의 ‘재치문답’ 혹은 ‘년센스퀴즈’와 같은 것이었으며 그래서 『고금소총』에 소개되었다. 이옥이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를 개작한 것도 이처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옥이 애금의 진술서 끝에 이 글을 고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료할 때 이야깃거리로 삼고자 한다[以資無聊中解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궁극적 독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이옥은 “『전등신화』를 읽는 시골 학동들[村童之讀剪燈者]”이라 지목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옥은 『전등신화』를 읽는 자들이 대부분 이서이며 실제로 그에게 이를 가져와서 배우고자 한 학동은 지인 장종득인데 지인은 이서의 자제들이 말아서 수행했다. 또 필영과 애금의 진술서를 이옥은 狀辭 혹은 供狀이라 했지만, 이는 정확히 말한다면 招辭 즉 관아에 불러가서 수령 앞에서 구두로 하는 진술인데 이를 아전들이 받아 적었다. 앞에서는 이를 ‘진술서’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사대부나 일반 백성이 작성하는 탄원서와는 다른 형태였다. 탄원서는 앞의 『백범일지』에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탄원을 하는 뜻은[右謹陳訴志段]’으로 시작하나 초사는 ‘아뢰옵니다[白等]’라는 말로 시작한다. 아무튼 이옥이 개작한 이러한 글들의 궁극적 독자는 소송 업무 등에 종사할 이서의 자제였던 것이다. 물론 이옥의 제자 중에는 평민 출신도 적지 않아서 이들도 역시 이 글을 읽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진술서를 읽는 궁극적인 독자는 이서의 자제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후기의 서당에 양반의 자제 이외에도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이 출입하면서 한문을 익히고 유교경전 등을 두루 읽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은 현실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로 진출하거나 혹은 성리학자로 이름을 떨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실용

43) 유희수, 이월영 편역, 『고금소총』, 전통문화연구회, 2014, 35~36쪽.

문 즉 토지나 노비매매문서와 소송장, 축문이나 혼서 등을 익히고 오늘날 면장에 해당하는 존위 등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은 서당에서 탄원서를 비롯한 각종 실용문을 읽고 작성하는 법을 익혔다.

한편 서당에서 중인이나 평민의 자제들이 주로 읽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 모음집이 『요람』 혹은 『수문록』 등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곳에 실린 글을 실제의 탄원서와 비교해보면 표현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수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 등이 크게 가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를 유발하고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탄원서가 수정 가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있었던 탄원 사실이 어떻게 가공 과정을 거쳐 설화 혹은 야담으로 변화하며 그 이후 어떻게 소설로 확장 변모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그러한 출발점이 주로 중인이나 평민들이 작성한 애절한 탄원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선후기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양반들만이 출입했던 향교, 서원, 서당에 중인과 평민들이 출입하게 되고, 이곳에서 문자를 익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들이 만든 독특한 문화가 때로는 양반들이 향유하던 문화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영향을 주어 조금씩 변모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함과 상호 교류를 살펴보아야 비로소 조선후기 문화의 전체상을 그려낼 수 있고 또 변화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 중인이나 평민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그것은 이러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널리 조사·수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사·수집 활동이 종가와 같이 양반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인이나 평민 가문이나 이들이 살던 마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중인이나 평민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사·수집될 기회마저 없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인이나 평민들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자료들을 세심하게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15년 6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15년 7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4일

참고문헌

1. 자료

- 정규혁, 『금마일기』,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번호 832.
 미상, 『수문록』, 개인소장.
 미상, 『요람』, 개인소장.
 미상, 『요람』,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청구번호 한古朝93-128.
 内藤吉之助, 『朝鮮民政資料-牧民篇』, 조선인쇄주식회사, 1942.
 전북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남원 둔덕방의 전주이씨와 그들의 문서(1)』, 1990.
 구상덕, 『승충명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김구, 『金九自叙傳 白凡逸志』, 나남출판, 2002.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완역 이옥전집』 2, 휴머니스트, 2009.
 이대형·이미라·박상석·유춘동 역, 『要覽』, 보고사, 2012.
 유희수, 이월영 편역, 『고금소충』, 전통문화연구회, 2014.
 이대형·이미라·박상석 역주, 『손와만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 저서

- 전경목 외, 『승충명록으로 보는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0.
 이해준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 논문

- 정석중, 「洪景來의 亂」,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하, 풀빛, 1981.
 김준영, 「와사옥안의 고대소설상 특성」, 『국어국문학』 114, 1995.
 김재환, 「와사옥안 역해」, 『새얼어문논집』 10, 1997.
 김영진, 「『廉丞傳』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3, 1999.
 정선희, 「『와사옥안』 작자고」, 『한국고전연구』 6, 2000.
 박여범, 『와사옥안』의 구조적 특질 연구, 『한국언어문학』 50, 2003.
 김영진, 「朝鮮 刊『剪燈新話句解』 諸本 研究(1)」, 『어문논집』 65, 2012.
 김영진, 「『손와만록자서』를 통해 본 향리 출신 문인 김경천의 생애」, 『대동한문학』 41, 2014.

Abstract

The petition that village school children read in the late Joseon period

Chon, Kyoung-mok*

In the late Joseon period, not only children of the nobility but children of the middle class or commoners went to village school and learned Chinese characters and read Confucian scripts. However, children of the middle class or commoners could not pass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 and become public officials or famous Non-Confucian scholars. So they learned practical texts such as trading documents of land or slaves, litigation documents, written prayers, or marriage letters and aimed to become officials like Jonwui, which corresponds to today's myunjang(head of a town). Therefore, children of the middle class or commoners learned how to write various practical documents like petitions at village schools.

Looking through 'Yoram' or 'Sumoonrok', which are collections of practical texts that the children of the middle class and commoners read at village schools, expressions were written in a literary way compared to other litigations submitted to government offices and there are added elements of fictional characters and events, so they arouse interest and create fun factors. These are important in that they help show how actual litigations were transformed to folktales or unofficial historical stories, which in turn changed into novels lat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beginning point of transformation into novels was petitions wrote by the middle class or common people.

Key words : the nobility, the middle class, commoners, village school, litigation document, petition, practical text, folktale, unofficial historical story, novel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